

#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박연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Relationship among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ing and Major Satisfac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Yeonhee Par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대전, 충청권의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15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성역할 갈등 평균은 6점 만점 중 2.75±0.62점, 군복무계획 평균은 7점 만점 중 4.99±1.30점, 전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중 3.90±0.58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의 차이에서 여학생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 성역할 갈등이 높았으며, 간호학과를 본인이 희망해 지원한 경우 전공 만족도가 높았다.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 남자,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ing and major satisfac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8 and a total of 159 male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ender role conflict was 2.75±0.62, the military service planing was 4.99±1.30, and the major satisfaction was 3.90±0.58.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ing and major satisfaction have no significant correlation.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preceding study and requires replication study.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rbitration program that can form positive relationships with girls in order to reduce gender role conflict among male nursing students.

**Key Words** :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ing, Major Satisfaction, Male, Nursing Studen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여성의 고유 직업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직업에 성차별이 감소하고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면서 간호대학생 중 남학생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62년도에 첫 남자간호사를 배출한 이후 2019년까지 1만 9

천여 명의 남자간호사를 배출하였으며, 2019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생의 13.8%인 2,843명이 남자 간호대학생으로 2014년 1,241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다[1].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성별에 따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외 연구에서도 간호 교육에 있어서 여학생 중심의 교육환경과 불평등한 임상실습 기회, 남학생을 위한 지도력 부재 등은 남자

\*Corresponding Author : Yeonhee Park(yhpark@dst.ac.kr)

Received December 4, 2019

Revised December 6,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2].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 위주의 교육 과정과 산부인과 등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실습의 한계나 부정적인 실습 체험, 남자 교수의 부재, 남학생에 대한 편견, 군입대로 인한 학문과 인간관계 단절 등 남자 간호대학생이 겪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3].

성역할 갈등은 사회적으로 규정한 성역할로 인해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4].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른 역할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역할 갈등을 가져온다. 이러한 성역할 갈등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5],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을 감소시킨다[6].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성지배적인 학과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진로 결정과 성역할에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과 여성위주의 교육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3,7,8],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여자 간호대학생 보다 학업 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성역할 갈등뿐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가진다.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군복무를 해야 한다. 재학 중 군복무를 하게 되면 학업과 인간관계가 중단되고 전역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졸업 후에 군복무를 하게 되면 간호학적 지식이 단절된 후 취업하게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10]. 선행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73.9%가 군복무를 진로장벽으로 인식하였고[11], 군복무계획의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12].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복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며, 수준 높은 군복무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는 늘고 있으나, 이들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다른 과로 편입을 하게 만든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3], 간호 대학생에게 간호 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겪는 성역할 갈등과 군복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의 전공만족도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지도가 요구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적응이나 성역할 갈등, 성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여학생 위주의 교육과정 개선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 충청권의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료수집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통해 상관분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3(medium), 유의수준 .05로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표본 수는 134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7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16명과 군복무 면제인 학생 8명을 제외하여 총 15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성역할 갈등

성역할 갈등은 O'Neil 등이 개발한 성역할 갈등 검사(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4]를 참고하여 최근 한국 남성의 남성성 및 성역할 갈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Lee 등[14]이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성공·권력·경쟁(8문항), 남성우울(8문항), 가정의무감(3문항), 일·가정 양립 갈등(6문항), 감정표현 억제(7문항),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5문항)로

구성되어있다[14].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은 37~222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4]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2.3.2 군복무계획

군복무는 우리나라 남성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문제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ong과 Kang[11]이 개발한 군 의복무계획 수준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군복무계획을 측정하였다. 병역을 마친 학생들은 군복무 전의 상황을 조사하였고, 병역 예정인 학생들은 향후 군복무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중요성(6문항), 실천성(5문항), 구체성(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11].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로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복무계획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 등의 연구[11]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학과평가조사지를 Kim과 Ha[15]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한 34개의 문항 중 Lee[16]가 전공만족 관련 18개 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공에 대해 일반만족(6문항),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6문항), 간호학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3문항),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만족(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6].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8-003-007)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전, 충청권의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조사 도중 중단할 권리, 익명성이 보장됨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 자료는 Kolmogorov-Smirnov test로 확인한 결과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 자료가 정규분포하지 않아 비모수통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와 Kruskal-Wallis test, 대응별 비교로 분석하였다.
-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earman 순위상관계수로 상관분석을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53세로 20대가 96.0%를 차지하고 있었다. 1학년이 30.5%, 2학년이 27.2%이며, 병역상태는 군필자가 70.2%로 가장 많았다. 입학 동기는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 경우가 67.5%였으며, 학교 적응의 가장 어려운 이유는 학과 수업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1)

Variable	Categories	n(%) or Mean±SD
Age(yr)		24.53±2.66
	20~24	71(47.0)
	25~29	74(49.0)
	≥30	6 (4.0)
Grade	1st	46(30.5)
	2nd	41(27.1)
	3rd	29(19.2)
	4th	35(23.2)
Military service	Served	106(70.2)
	Unserved	45(29.8)
Religion	Existence	69(45.7)
	Nonexistence	82(54.3)
Entrance motivation	On his own account	102(67.6)
	According to his grades	5 (3.3)
	Recommendation of the people around him	44(29.1)
Barrier to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Relationship with a female student	31(20.5)
	Curriculum	85(56.3)
	Clinical practicum	10 (6.6)
	Gender bias about male nurses	4 (2.7)
	Ect.	21(13.9)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성역할 갈등 평균은 6점 만점 중

2.75±0.62점, 군복무계획 평균은 7점 만점 중 4.99±1.30점, 전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중 3.90±0.5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ing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Male Nursing students

(N=151)

Variables	Range	M±SD
Gender role conflict	1~6	2.75±0.62
Success, power, competition	1~6	3.34±0.88
Male chauvinism	1~6	1.83±0.82
Strong responsibility for raising family	1~6	3.93±1.24
Conflicts in work-family balance	1~6	3.43±1.24
Suppression of emotional display	1~6	2.85±1.06
Suppression of affection to males	1~6	1.77±0.87
Military service planing	1~7	4.99±1.30
Importance	1~7	5.45±1.39
Practice	1~7	4.08±1.66
Concrete	1~7	5.59±1.94
Major satisfaction	1~5	3.90±0.58
General satisfaction	1~5	3.90±0.79
Recognition satisfaction	1~5	4.19±0.63
Course satisfaction	1~5	3.48±0.82
Relation satisfaction	1~5	3.73±0.83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군복무 계획, 전공만족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군복무계획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은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의 이유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x<sup>2</sup>=13.330, p=.010). 사후분석 결과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의 이유가 여학생들과의 관계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기타이유로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들의 성역할 갈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의 기타이유로는 ‘어려움이 없다’, ‘군 입대’, ‘휴·복학 후 다른 반이 되는 것’, ‘휴·복학 후 수업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 ‘학비조달과 공부의 병행’ 등이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입학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sup>2</sup>=13.330, p=.010). 사후분석 결과 본인 스스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한 대상자가 성적에 의해서 선택하거나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 선택한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in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ing and Major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1)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ing		Major satisfaction	
			M±SD	U or x <sup>2</sup> (p)	M±SD	U or x <sup>2</sup> (p)	M±SD	U or x <sup>2</sup> (p)
Age(yr)	20~24	71	2.63±0.55	4.523 (.104)	5.07±1.25	5.574 (.062)	3.94±0.65	1.498 (.473)
	25~29	74	2.87±0.68		5.05±1.18		3.86±0.51	
	≥30	6	2.85±0.51		3.27±2.15		3.77±0.62	
Grade	1st	46	2.72±0.53	.073 (.995)	5.07±1.11	1.495 (.683)	4.01±0.57	6.602 (.086)
	2nd	41	2.81±0.79		5.09±1.53		3.84±0.73	
	3rd	29	2.78±0.56		4.91±1.07		3.92±0.51	
	4th	35	2.72±0.59		4.84±1.44		3.80±0.44	
Military service	Served	106	2.78±0.66	2,244.000 (.566)	4.84±1.40	2,820.000 (.077)	3.86±0.54	2,685.500 (.221)
	Unserved	45	2.70±0.52		5.36±0.95		3.97±0.67	
Religion	Existence	69	2.76±0.64	2,776.000 (.843)	5.03±1.50	2,636.000 (.471)	3.88±0.58	2,932.000 (.700)
	Nonexistence	82	2.75±0.62		4.96±1.11		3.91±0.59	
Entrance motivation	On his own accounta)	102	2.74±0.58	.074 (.963)	4.85±1.29	5.476 (.065)	3.97±0.56	7.227 (.027)
	According to his gradesb)	5	2.75±0.95		4.67±1.41		3.39±0.69	
	Recommendation of the people around himc)	44	2.79±0.70		5.35±1.27		3.79±0.60	
Barrier to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Relationship with a female studenta)	31	3.11±0.73	13.330 (.010)	4.93±1.62	4.232 (.375)	3.76±0.72	2.628 (.622)
	Curriculumb)	85	2.71±0.58		5.06±1.11		3.91±0.55	
	Clinical practicumb)	10	2.65±0.40		4.44±1.66		3.86±0.43	
	Gender bias about male nursesxd)	4	2.70±0.31		6.11±0.80		4.18±0.32	
	Ect.e)	21	2.46±0.56		4.87±1.34		4.01±0.60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Military Service Planning, Major Satisfaction among Male Nursing Students.

(N=151)

Variables	a)	b)	c)
	rho(p)	rho(p)	rho(p)
Gender role conflict(a)	1		
Military service planning(b)	.018 (.824)	1	
Major satisfaction(c)	-.040 (.623)	.142 (.081)	1

####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은 6점 만점에 평균 2.75점으로 중간 이하의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을 조사한 Jung과 Kweon[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성과 남녀에 따른 역할 구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 갈등이 높은 대상자는 사전에 간호학과의 입학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입학한 경우에는 학과 적응의 어려움으로 중도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사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제로 자료수집 시기에 따라 성역할 갈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점수가 2017년도에 자료를 수집한 Chae와 Jung[6]의 연구에서는 3.04점, 2014년에 자료를 수집한 Jeon과 Yeom의 연구에서 3.23점[7]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이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낮았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하게 2018년도에 자료를 수집한 Jeong 등[18]의 연구에서는 2.18점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성역할 갈등의 점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성성과 남녀에 따른 역할 구분 감소와 함께 남자 간호대학생과 남자간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실제 남자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성역할 갈등이 감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역할 갈등의 하위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1.77점)였으며, 가장의무감(3.9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e와 Jung[6]의 연구 그리고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Hwang과 Kim[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가장의무감이 높음을 시사한다.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19]에서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낮고, 이직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과 남자 간호사들이 겪는 성역할 갈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사를 준비하는 시기인 대학생일 때부터 성역할 갈등 감소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간호사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모두 중시되며, 간호사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감소되어야 한다.

군복무계획은 7점 만점에 4.99점으로 나타났으며, Ahn[12]의 연구에서 4.88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남자 간호대학생이 아닌 일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1]에서 군복무계획은 4.54점으로 나타나 학과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군복무계획의 하위 영역을 보면 구체성이 5.59점, 중요성이 5.45점, 실천성이 4.08점으로 군복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계획에 필요한 행동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타 항목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1, 12, 2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상담 진행 시 학교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군복무의 종류와 자격, 시기,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군복무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9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6, 21]와 비슷한 결과이다. 하위영역을 확인하면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4.1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학 교과 과정에 대한 교과만족(3.48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하위영역은 인식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순으로 타났으며,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6,23].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이 속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15],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21] 진로준비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간호전문직관이 잘 적립되어 있을 때, 간호업무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으며, 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문성의 확립 및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내재로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23]. 또한 대학생은 진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 취업 전 진로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간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첫 직장의 만족도가 높았으며[24], 이는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들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6,12,20]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성역할 갈등이 낮았으며 전공만족도 하위 영역 중 인식만족이 높았다. 또한 군복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남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 남녀에 따른 역할 구분이 감소되고, 남자 간호사가 증가하면서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느끼는 성역할 갈등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와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매체를 통한 정보 탐색이 수월해지면서 군복무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성역할 갈등과 군복무계획이 전공만족도에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충분한 변수를 조사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 등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여학생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 성역할 갈등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여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과의 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간호학과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더 많은 수의 대상자와 군복무 예정자의 군복무계획 수준과 전공만족도를 조사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여자 간호대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8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REFERENCES

- [1] G. S. Jung & J. S. Lee. (2019). 2,843 male who passed this year's national nurse's exam.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Retrieved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23796&intPage=1>
- [2] C. E. O'Lynn. (2004).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5)*, 229-236.
- [3] M. Kim, S. H. Cho & K. S. Jeon. (2014).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3)*, 109-119.
- [4] J. M. O'Neil, B. J. Helms, R. K. Gable, L. David & L. S. Wrightsman.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 14*, 335-350.  
DOI : 10.1007/BF00287583
- [5] J. M. O'Neil.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6] M. J. Chae & H. J. Jung. (2018).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role conflicts on male nursing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395-404.  
DOI : 10.21742/AJMAHS.2018.09.25
- [7] H. O. Jeon & E. Y. Yeom.. (2014).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 Association, 14(12)*, 796-807.  
DOI : 10.5392/JKCA.2014.14.12.796

- [8] S. H. Kim & S. Y. Kim. (2016). Adaptation Experiences of mal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7(8), 113-126. DOI : 10.5762/KAIS.2016.17.8.113
- [9] E. J. Sullivan. (2000). Men in nursing: The importance of gender diversi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5(16), 253-254. DOI : 10.1053/jpnu.2000.9455
- [10] Y. R. Park. (2009).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4), 449-458.
- [11] H. Y. Hong & H. Y. Kang. (2013). The difference between career barrier recogn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mandatory military service planning level among 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38(2), 218-239.
- [12] M. K. Ahn. (2019).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ilitary duty plan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93-102. DOI : 10.5977/jkasne.2019.25.1.93
- [13] H. J. Park & J. W. Oh.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17-426. DOI : 10.14400/JDC.2014.12.12.417
- [14] S. Y. Lee, I. S. Kim, J. H. Kim & J. A. Kim. (2012). Development of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The Women's Studies*, 82(1), 5-33.
- [15]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16]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7] G. A. Jung & H. S. Kweon. (2019).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7(2), 127-137.
- [18] C. Y. Jeong, Y. S. Seo, B. H. Kang & E. H. Cho. (2019). The effects of the gender role conflict on nursing professional i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7(1), 1248-1256. DOI : 10.15205/kschs.2019.06.30.1248
- [19] H. M. Hwang & M. J. Kim. (2017).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intention for men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1), 32-41.
- [20] E. Y. Cho. (2015).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e and military duty planing level on major satisfaction in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6), 3375-3390.
- [21] K. M. Lim, H. Y. Kim & G. J. Park. (2017).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23-431. DOI : 10.5762/KAIS.2017.18.10.423
- [22] S. R. Lee. (2011).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
- [23]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24] S. G. Lee & J. K. Lee. (2008).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1-25.

박 연 희(Yeonhee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을지의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2년2월 : 을지대학교간호  
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2월 : 을지대학교간호  
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치매,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
- E-Mail : yhpark@dst.ac.kr